

# 의약 분업 ! 온 국민의 건강이 올라갑니다

## 1.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는 ?

■ 공휴일·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하여 병·의원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의식 장애  호흡 곤란  혈관 손상  소아 경련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 장애

## 2. 산재·자동차 보험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산재 보험,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입니다.

## 3. 의료 보호 대상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 기관과 약국에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 4. 보건소나 치과병원도 의약분업 대상입니까?

■ 그렇습니다. 모든 의료 기관(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등)은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 5. 한의원(한방 병원)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 아닙니다. 한의원(한방 병원 포함)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 6. 우리 읍에는 병원(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와 같이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읍·면의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의료 기관과 약국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 의약품의 1회 판매량을 성인 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하였고 예외 지역에서도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예를 들면 비아그라)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하도록 했습니다.

## 7. 사업장 내 부속 의원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

■ 사업장 내 의무 시설(부속의원)을 별도의 의료 기관으로 관내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됩니다.

■ 다만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해 보건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 환자, 응급 환자 및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장 내에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약할 수 있습니다.

## 8. 학교 내 양호실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보건실(양호실)에서 학

교 의사, 학교 약사, 양호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 투약할 수 있으며, 대학의 보건실도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지금까지 받던 의료보험 혜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시는 경우 이전과 같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불편하지 않을까요?**

▣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처방전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처방 일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정 기간의 처방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11. 노인들도 병·의원 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합니까?**

▣ 노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택시로 돌아오시는 동안 FAX로 처방전을 동네 약국에 보내면 가족들이 대신 가서서 약을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대형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형 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환자들이 몰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면 동네 약국 또는 단골 약국과 즉시 연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13. “단골 약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단골 약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 약국으로 지정·이용하도록 권장하

고, 당해 단골 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 관리, 투약 지도, 중복 투약 점검 등 최선의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료보험 카드에 단골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환자는 외래 진료 시 의약품 처방전을 자신의 단골 약국으로 FAX 또는 PC통신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약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제는 어떻게 되나요?**

▣ 약화사고의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이 잘못 되면 의사에게, 조제가 잘못되면 약사에게, 유통 또는 제조 과정에서의 변질·변패 또는 품질 불량에 의한 경우는 유통 업소 또는 제조 업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약화 사고는 약사 책임입니다.

- ①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
- ②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의 약품을 끼워 판 경우
- ③ 처방된 의 약품을 삭제한 경우
- ④ 분량 또는 투약 일수 등을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 ⑤ 대체 조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⑥ 처방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방 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

**15. 의 약품을 반납 또는 교환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 기간 중에 반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반납의 원인이 조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에 기인한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서 각각 반납을 받되 환자가 약국에서 반납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협의하면 됩니다.